

‘금호타이어 화재’ 한 달...원인 조사 두 달 뒤에나 본격화

건물 붕괴 우려에 내부 접근 난항
금타, 해체계획서 주중 제출 목표
광산구 심의·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소방청 중앙조사단 활동 연장 예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째인 17일 오후 불에 탄 2공장이 빼어난 드러난 채 남아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이 난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어 내부 접근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체계획서가 통과돼야 하는데,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려 본격적인 조사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 교착...‘중앙조사단’ 연장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7시11분께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전담팀을 운영 중이고, 광주시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 속해 있다.

지난달 21일 구성을 마친 경찰 전담팀은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와 함께 광주공장 측으로부터 건넌 받은 자료를 분석해 왔다.

앞서 소방청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 현장 조사에 착수, 불이 났을 당시 대응의 적정성 등 화재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전담팀과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는 ‘화재 원인 파악’으로 동일하다.

문제는 진화 당시 살수 작업과 증장비 투입으로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면서 생긴 붕괴 우려에 내부 진입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담팀과 합동조사단은 현재까지 중심부 조사를 통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광주공장 측은 현재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체계획서의 범위는 공장 전체가 아닌 화재 감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광산구는 우선 자체 검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나는데는 통상 두 달이 소요되나 보완 요청이 이뤄질 경우 이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화재 현장 중심부에 대한 조사는 두 달 후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당초 오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합동조사단은 활동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체계획서가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인 나와야 보험금도...주민 보상은 별도

광주공장 측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도 화재 원인이 규명된 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화재 보험이어도 자연발화나 실화, 방화 등 원인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공장 측은 주민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와 인원은 총 2만199건, 1만3천34명으로 집계됐다.

인적 피해가 1만2천383건으로 가장 많고 물적 피해 5천923건, 기타 1천888건이다.

피해 접수 인원에게 보상 절차 안내문이 전달됐다. 신청자들은 이를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빠른 보상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마여파 내부 ‘검댕’ 등 유실 우려

현장 내부 조사가 여름철로 전방되면서 그 사이 장마의 여파로 블랙카본(검댕)이 유실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에 비가 내렸던 지난 1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서측 수로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에서 화재 잔재물을 비롯한 오염수가 황룡강으로 유출됐다.

성분 분석 결과 오염도가 상승하긴 했으나, 비에 섞여 흘러나간 화재 잔재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던 지난 주말과 여름철 장마의 영향이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실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검댕은 화재 당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환경 오염 예방과 성분 분석을 위한 현장 보존 등의 방안, 오염된 빗물과 그냥 비가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2차 사후조정 일방 취소는 교섭 절차 무시”

광주 시내버스 노조, 결의대회서 규탄
사측 “3% 인상 외 추가 조정 무의미”

광주 시내버스 사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했다.

광주 지역버스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조정 기회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시장 발언을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사측과 노조 양측에 이날 오후 2시 제2차 사후조정을 제안했다. 당초 양측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은 돌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배정 교섭으로 노동자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협상에 대한 문이 열려있으니 사측과 광주시는 조속히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또한 말로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준공영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사후조정 회의 불참 사유에 대해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언급한 임금 3% 인상안을 시민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 조정은 의미가 없다”며 “이에 따라 향후 협의 자리엔 참

석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협박 문자 60대女 항소심도 벌금형

채무자가 돈을 갖지 않자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완수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5월 B씨에게 총 7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같은 해 6월 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안을 종합 고려할 때 약식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안재영기자

보호관찰관 지도 불응 40대 다시 옥살이

항소심 법원, ‘징역 6개월’ 유지 판결

출소 후 심수회 넘겨 받은 경고를 무시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2023년 1월 광주지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2월 형 집행을 종료한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당시 A씨는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A씨

는 2024년 2-10월 사이 휴대전화 개통 사실 보고나 통화 불응 등 총 13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지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으나, 지난해 10월26일 자정까지 귀가하지 않고 여주종합터미널 등지에서 머무르는 등 의출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권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성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